



이달의 포커스 뉴스

<특별인터뷰> 베트남 중남부 코참 손영일 회장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줄 지를 고민해야죠”

18P

Covid-19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열풍은 계속되고있다

27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16
☑ <특별인터뷰> ... 베트남 중남부 코참(한인상공인연합회) 손영일 회장	18
☑ <베트남 비즈니스이야기 2탄> 기은무역 김한용 대표	23
☑ <법률자문> 베트남 부동산 개발 절차 전현우 변호사	27
☑ <법률>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2) ... 김유호 변호사	30
☑ <물류상식> 수출서류(사업송장) 대진향운 지성구 법인장	32
☑ <새로나온 베트남 관련 보고서>	34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빈즈영성>	35
☑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42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7





RCEP 발효, 베트남 수출 유망 상품은?

- 정보기술, 섬유, 농업, 자동차, 통신 업종 등에서 수혜 예상
- 수입국별 관세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베트남은 경쟁력있는 인건비, 중국과의 근접성, 정치적 안정성 및 제조업 성장을 위한 정부 노력 등의 이유로 RCEP 발효로 인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베트남이 강점을 보이는 섬유, 농업, 전자 분야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통신 업종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

한국→베트남, 전기전자부품 특혜관세 혜택은 없지만 원산지 누적 가능

한국 관세청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수출국이며, 수출 비중이 약 8.8%에 달하는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다. 주요 수출 상위 품목으로는 휴대폰 부품, 메모리칩, 프로세서, 텔레비전 부품, 인쇄회로 순이다. 대부분 휴대폰, TV 등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들은 기본 관세율이 0%이거나 또는 TV 부품의 경우 기본 관세가 5%이다. 한-베, 한-아세안 FTA 적용시와 동일하게 RCEP 활용 시에도 특혜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입시 관세율은 동일하더라도 베트남 수입 후 수출시 FTA 활용을 위해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중국, 철강제품 수출 기회

2021년 기준 베트남에서 중국 수출 상위 제품은 대부분 전자(휴대폰, TV) 부품 또는 합성고무로 확인된다. 다만 전년 대비 철강제품들의 수출이 500~1000% 증가했으며 해당 제품들의 경우 RCEP 활용으로 인한 수출 증대의 기회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 400% 이상인 철강제품 3종의 경우에 한국,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RCEP 특혜관세율이 동일하나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베트남에서의 추가 가공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시 RCEP 원산지 누적 적용을 통한 RCEP 적용도 가능하다.

시사점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인해 베트남의 제조기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베트남이 이미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입장에서 RCEP은 기존 협정들에 비해서 관세율 인하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전기전자, 철강 산업의 경우에 한국·베트남·중국이 집약적인 생산기지의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RCEP 활용 모델에 대한 기업 내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KOTRA 호치민 무역관 RCEP 기획 연재 시리즈

- 1) 베트남, RCEP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날개를 달다
- 2) 2022년,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로 준비하세요
- 3) RCEP 발효, 베트남 산업별 동향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체결에 따른 변화

- 파견 근로자 상대국 보험료 면제 및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사회보장협정이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자격 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 2월 14일 서울에서 베트남과도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했다.

1년 미만 근무 주재원 및 현지 채용 근로자가 적용대상

한-베 사회보험 협정은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시행령에 따라 주재원은 이미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재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자 그리고 현지 채용된 근로자로서 한국의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파견 근로자 상대국 보험료 면제 및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한-베 사회보험협정은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파견된 근로자가 파견기간 60개월(36개월 연장 가능)동안 파견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대국에서 연금보험료는 면제되는 것으로 합의했으므로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된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베트남에서는 60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협정 체결로 각 국에서 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각 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여, 한국과 베트남에서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각 국가의 연금 납부기간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

본 협정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각 체결 당사자가 다른 쪽 체결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베트남 측에서는 내부 절차를 완료했으나 우리 측에는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우리 측에서의 국회 비준절차가 끝나고 베트남에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을 통보하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인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될 것이다. 그러므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하나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진출 기업 및 근로자는 당분간은 베트남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미발효로 인하여 베트남에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일시금으로 반환 받거나 발효 후 사회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합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나 베트남 법 개정 등 여러 절차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나 양국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와 시행 취지에 이미 동의한 만큼 양국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베트남 폐기물 처리 현황과 정책

- 경제성장, 도시화 진전 뒷면 급증하는 폐기물 배출량으로 인한 고민 심화
- 베트남 폐기물 처리 실태 파악을 통한 기회 요인 발굴

베트남 폐기물 배출 현황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서 발간한 국가 환경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4만 4,400톤이던 일평균 고형 폐기물 배출량은 2019년 6만 4,658톤(도시지역은 3만 5,624톤, 농촌지역은 2만 8,394톤)으로 9년만에 약 46%가 증가했다. 베트남의 1인당 일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0.35~0.8kg에 달한다. 매년 약 2,500만 톤의 생활 고형 폐기물이 생겨나며, 그중 50% 이상이 도시에서 발생한다. 2018년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도시지역의 고형 폐기물 발생량은 향후 연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전체적으로는 폐기물량이 연 5% 증가해 2030년에는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5,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

베트남 중앙 정부와 각 성·시의 지방정부는 급증하는 폐기물 흐름의 수집, 운송, 처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장하는 경제와 함께 폐기물 배출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동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현재 폐기물 처리 시스템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베트남 도시지역의 평균 가정용 고형폐기물 수거율은 92%, 농촌지역은 66% 수준이다. 아직까지 상당히 기초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폐기물은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폐기물 처리방식별 현황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 처리기술은 대부분 베트남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환경과 기후적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베트남산 장비와 기술은 불완전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 베트남에 소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로 규모가 작고 기술 투자가 적으며 기술이 낙후된 기계 및 장비로 인해 2차 환경 오염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고형 폐기물 처리시설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매립시설이며, 베트남에는 904개의 매립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 외 시설로는 소각장(381개), 퇴비화공장(37개) 등이 있다. 베트남에서 전국적으로 가장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이나 매립장 중 위생기준을 만족하는 매립지는 2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정부의 폐기물 처리 발전 계획

베트남 총리는 2018년 5월 7일 자 결정서 '2050년까지의 비전, 2025년까지 고형 폐기물의 일반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Decision No. 491/QD-TTg)'을 공표하며 향후 고형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발전방향과 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까지 도심에서 배출되는 생활 고형폐기물의 90%는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식에 따라 수거 및 처리해야 하며, 수거 폐기물 중 매립방식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비중은 30% 미만이어야 한다.





베트남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협력 기회

- 베트남 국민 일평균 6시간 인터넷 사용, 디지털 전환 본격화
-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관련 진출 기회 확대

베트남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0위, 전체 인구의 70%(약 6,800만 명)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높은 디지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베트남 정부도 최근 2025-2030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 베트남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디지털 경제

베트남 디지털 경제가 가파른 성장세로 베트남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1년 베트남 디지털경제는 약 2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대비 31%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다. 비록, 온라인 여행 부문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25억 달러에서 2021년 14억 달러로 약 45%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운송 및 음식 배달 부문이 각각 53%, 35%의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베트남 정부

베트남 정부는 2020년 6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발표, ▲ 디지털 정부, ▲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사회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2025년 및 2030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점진적·단계적이 아닌 획기적인(Breakthrough) 전환으로 정의하면서 현재 GDP의 8.2% 비중인 디지털 경제를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다소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달성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주목된다.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 느끼는 베트남 기업들

베트남 기업들이 느끼는 디지털 전환의 애로사항으로는 투자비용이 60.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및 수익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업무관행 변경의 어려움도 52.3%로 베트남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2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주로 겪는 어려움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및 솔루션을 갖추고도 기존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2025-2030 국가 디지털전환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헬스케어, 교육, 금융, 에너지, 물류, 산업제조, 농업 등 8대 디지털혁신 우선 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 전환이 아닌 '획기적 전환'으로 정의하면서 공격적인 목표치를 설정했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프로젝트, 현지 파트너 기업들의 육성 등 여러 지원책 발표가 기대된다.





휘청이는 베트남 석유제품 생산, 한국에 기회 될까

- 베트남 최대 정유소 가동을 저하로 자급률 감소
- 對베트남 석유제품 수출 상위국 한국, 수출 증대 기회 전망

베트남 정유산업 현황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을 말하며 주요 석유 정제 제품은 휘발유(RON 95, 92), 등유, 제트유, 경유, 중유 등의 연료유, 윤활유, LNG, LPG 등이 있다. 응이선 정유(Nghi Son Refinery and Petrochemical LLC)는 베트남 최대의 정유 공장으로, 2013년 10월 착공해 2018년 12월 상업 운영을 시작했고 석유제품 생산 능력은 하루 20만 배럴로, 연간 670만 톤의 가솔린과 디젤을 포함하여 총 1,000만 톤이다. 한편 베트남 최초 정유소인 중부 광응아이(Quang Ngai)성 중꿏(Dung Quat) 정유소의 생산량은 응이선 정유의 절반 수준이다.

베트남 정유 대란 현황

현재 정유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상부는 전국 36개 석유 유통업체 중제트유를 공급하는 3곳을 제외한 33곳에 대해 운영, 허가, 시설, 수입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들어 불량 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체가 적발되어 당국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재무부에서는 휘발유 환경보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료값 폭등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리터당 500~1,000 동의 환경보호세 인하를 제안했다.

베트남 원유 수입 확대 난항 및 가동을 저하 지속

베트남석유가스그룹은 단기적으로 석유 안정화 기금을 통한 원유 수입으로 정상적인 가동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제 유가 상승 및 공급 부족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 원유의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 분석과 예측을 위한 데이터 정보 및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석유 저장량 또한 충분하지 않아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사점

베트남의 불안정한 석유제품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베트남으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던 국가들에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여 닫혀있었던 국경이 3월 15일 이후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및 무격리 입국 승인 등 베트남 관광이 전면 재개됨에 따라 제트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전반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고품질 원유를 보유한 말레이시아에 '21년 1위를 내주기 전까지 한국은 지난 20년동안 베트남의 석유제품 1위 공급자였다. 한국 정유업계에서는 올해 수출량을 1,700만~1,800만 배럴로 전망하며, 작년 1,117만 배럴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응이선 정유 완공과 코로나19에 따른 부진 이후로 한국 정유업계의 석유 제품 수출이 확대될 기회로 보이며, 정유공장 신규 건립도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베트남 지속가능개발 정책 및 관련 기업 동향

- 베트남 지속가능개발지수 전세계 51위로 2016년 대비 무려 37계단 상승
-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발주 확대 등 전폭적인 정책지원 전망

전 세계적으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와 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가 이러한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베트남 기업들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의 지속가능개발 현주소

국제연합(UN)이 발표한 2021년 지속가능개발지수(SDGs Index) 국가 순위에서 베트남은 종합점수 72.8점으로 동남아대양주 국가들의 평균치인 66.7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하며, 세계순위도 2016년 88위에서 2021년 51위로 수직 상승하였다. 아세안 국가중에서는 태국(43위)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다. 베트남 정부는 빈곤퇴치, 기아 종식,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 5가지 부분에서 2030년까지 국제연합(UN)이 설정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베트남 정부정책

베트남은 2015년 UN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17가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공동 선언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국가 Action Plan에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정식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후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115가지의 세부 목표를 세워 구체화하고 매 5개년의 목표를 세워 이행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COP21)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6년 파리기후협약 이행 목표를 국가 Action Plan에 포함하여 구체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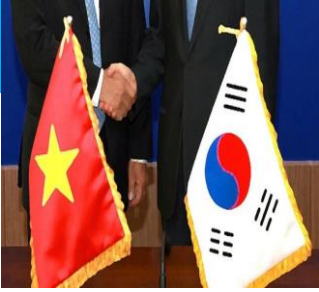
현지 기업들의 지속가능개발 경영 사례

비나밀크(Vina Milk)는 2020년부터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로만 운영되는 'Green Farm'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21년 3월 누적 기준, 5곳의 Green Farm에서 태양광을 활용해 약 1,900만 Kwh 전력을 생산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1,700만kg 감축했다. 이외에도 사회환원을 위한 여러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비나밀크는 2021년 베트남 지속가능개발지수 TOP10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일찍이 환경보호,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지속가능개발지수 국가 순위가 2016년 대비 37계단 상승한 51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매우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향후 친환경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관련 프로젝트 발주 확대 등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예상되며, 관련 분야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가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베트남 외국인 투자 동향 및 전망

- 2020년 대비 외국인 투자액은 증가했으나 투자 건수는 저조
- 코로나 리스크 우려 해소 여부가 외국인 투자 정상화의 관건

2021년 대베트남 FDI 총괄

미-중 무역전쟁 및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은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이며, 그간 유력한 'POST CHINA' 지역으로 각광받았던 베트남은 기대와 달리 최근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바 있다. 2021년 한 해 베트남에 투자된 FDI총액은 311억 5,00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약 9.2% 상승했으며, 신규 및 증액 투자 프로젝트는 전년대비 투자액은 15.2% 증가했고 투자 건수는 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인 2019년 베트남 FDI 총액 380억 2,000만 달러 대비 약 82% 수준으로 아직은 정상적인 FDI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형 프로젝트 목록

침체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는 베트남의 FDI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제조업 분야 주요 신규 프로젝트로는 Kraft Vin 6억 1,000만 달러(일본, 제지), Amkor Technology 5억 2,000만 달러(싱가포르, 자동차부품), Fukang Technology Foxconn 4억 5,000만 달러(싱가포르, 전자부품), Jinko Solar 3억 6,000만 달러(중국, 태양광패널), BYD Electronic 2억 6,000만 달러(홍콩, 전자부품), Everwin Precision 2억 달러(홍콩, 플라스틱), LOTES Company 1억 2,000만 달러(대만, 전자부품) 등이 있으며, 기 진출기업의 투자 확대(증액투자) 프로젝트로는 LG 디스플레이 7억 5,000만 달러(한국), Intel 4억 7,000만 달러(미국), Radian Tire 3억 1,000만 달러(중국) 등이 투자됐다.

분야별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

2021년 분야별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 및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업 투자가 강세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영 및 건설, 도소매 유통업 투자는 약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33.2% 상승하며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9년 대비 약 73.7%의 투자만 이루어지는 등 아직 완전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진 못한 상황이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제4차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최근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인한 방역정책(장기간의 사회적 격리, 관광객 입국 제한) 등으로 베트남 내 유통 및 소비시장이 위축됐고 이와 함께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에도 반영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2021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동향

2021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규모는 2020년 대비 25.4% 증가했으나 투자 프로젝트 수는 30.3% 하락하며 투자 빈도는 축소됐다. 2021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중 총 투자액 및 그린필드 투자(신규+증액)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투자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에 약 74.0%가 집중됐고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업(13.2%), 건설업(3.8%), 도소매유통 및 수리서비스업(2.0%), 물류 운송업(1.4%), 요식업(1.4%) 순이었다.





▶ 원유 배럴 당 110달러 돌파, 니켈가격 15% 인상

베트남상품거래소(MXV)는 3월 23일 거래종료기준 4개이상의 국제 선물거래 상품가격이 인상되면서 베트남선물거래지수(MXVIndex)가 전일 대비 2.6% 상승한 3,035포인트라고 밝힘. 원유 가격은 전일 종가 대비 WTI유 배럴당 114.93 달러로 5.2% 상승, 브렌트유는 116.75 달러로 5.3% 상승함. 금과 은은 온스 당 각각 1.14% 상승한 1,943 달러와 25.2 달러를 기록함. 니켈 역시 전일 종가 대비 15% 상승하여 톤당 3만 2,380 달러로 급등했으며, LME기준 니켈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짐. 철광석 선물거래 가격은 전일 종가 대비 1.6% 상승함.

[Nhan Dan, 3. 24]

▶ 베트남, 한국포함 17개국 상호인정 가능한 디지털 백신여권 배포 예정

베트남 외교부는 한국 포함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벨라루스,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몰디브, 팔레스타인, 터키, 이집트, 스리랑카, 뉴질랜드, 싱가포르, 세인트루시아 등 17개국의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상호 인정한다고 발표함. 한 달 전까지 베트남과 백신여권 상호 인정가능한 국가는 14개국이었으나, 이번에 한국, 싱가포르, 세인트루시아 등 3개국이 추가됨. 이들 국가에서 베트남에 입국할 경우 백신접종증명서에 본국 영사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반대로 베트남에서 접종한 백신 여권의 QR코드를 사용하여 17개 상호인정 국가에 입국할 때도 백신 접종 기록이 인정됨.

[참고자료 : 디지털 백신여권 상호 인정 17개국](#)

[베트남 정부포털, 3. 23]

▶ 동나이성 피안 수력발전소 2기 증설에 2026년까지 1억 7,054만 달러 투자

베트남전력공사(EVN)는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피안수력발전소 증설에 3조 9,000억 동(1억 7,054만 달러)을 투자한다고 밝힘. 피안 수력발전소 2단계 사업에서는 200MW의 발전용량이 확장되고, 2023년 2분기에 건설을 시작하여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임. 이를 위하여 동나이성은 94헥타르의 토지를 개간하고 그 중 40헥타르의 토지 용도를 변경해야하며, 해당 지역 50세대의 거주가구도 이동시켜야 함. 피안 수력발전소 확장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완공되고 2026년 3분기에 1,2기 모두 발전을 가동하면 연간 추가 생산 전력은 1억 3,100만 k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VN Express, 3. 22]



▶ 빈즈엉성, LEGO 덕분에 올 1분기 FDI 유치액 전년 동기 대비 3.6배 증가

LEGO는 베트남 남부 빈즈엉성에 있는 베트남 - 싱가포르 산업단지3(VSIP3)에 US 10억 달러 규모의 LEGO 최초 탄소 중립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2022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생산 시작을 목표로 함. 빈즈엉성 Bac Tan Uyen의 1,000 헥타르 면적에 이르는 VSIP3의 총 투자규모는 2억 8,000만 달러이며, 빈즈엉성에는 2022년 3월 기준 4,033개 프로젝트, 377억 달러의 유효 프로젝트가 있음. 빈즈엉성 전역에는 약 1만 3,000헥타르 규모의 29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산업단지 점유율은 83.4%를 초과함.

[베트남 정부포털, 3. 22]

▶ 베트남 국세청, 해외 공급업체의 세금납부용 포털 및 모바일앱 출시

베트남 국세청은 3월 21일 해외 공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 납부 포털(Vietnam e-Tax Portal) 및 모바일 앱을 출시함. 이를 통하여 베트남에 법인 및 고정사업장(PE)이 없는 해외 공급업체가 베트남에서 수익을 창출할 경우, 동 포털을 통한 온라인 매출 등록, 과세 징수 및 세금 납부가 전면 가능해짐. 동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글로벌 IT 서비스 제공 업체를 비롯한 해외 사업자의 탈세 및 세금 납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임. 2020년 한 해 베트남 정부가 해외 IT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게 징수한 세금은 1조 1,400억 동이며, 2021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조 3,200억 동임. 2018~2021년 주요 해외 IT 대기업의 베트남 납부세액은 Facebook(7,340만 달러), Google(7,000만 달러), Microsoft(2,500만 달러) 등임. 베트남 정부의 과세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PE)을 두지 않고 수익을 창출 하던 해외 IT서비스 플랫폼 제공 기업들은 앞으로 매년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정부포털, 3. 21]

▶ IPPG, 교통부에 푸꾸옥 공항 확장 투자 제안

해외 명품 브랜드의 90% 이상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명품 수입 유통업과 항공 물류업, 소매업, 요식업등의 사업구조를 가진 Imex Pan Pacific Group(IPPG)은 베트남 교통부에 푸꾸옥 국제공항 확장 투자 제안서를 제출함. IPPG는 끼엔장성 푸꾸옥 국제공항의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화물창고 및 활주로 등을 전면 확장하고 면세점을 세우는 방안 등을 제안함. IPPG는 2018년 캄란 나트랑 공항 건설에 3조 7,350억 동(약 1억 6,330만 달러)을 투자한 바 있음. 푸꾸옥 공항은 현재 베트남공항공사(ACV)에서 관리 및 운영 중이며, 연간 25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과 보잉767, 747항공기 약 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를 보유중임. 2019년 기준 푸꾸옥 공항에는 이미 한 해 370만 명 방문으로 연간 수용승객을 초과하여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VN Express, 3. 17]



▶ 베트남, 3개 성에 약 360만 톤 니켈 보유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광업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베트남의 총 니켈매장량은 약 360만 톤으로서 타잉화(3,067,020톤), 선라(420,523톤), 까오방(133,677톤)이 주요산지임. 대부분의 니켈 자원은 타잉화에 위치한 Co Dinh Chromite광산에 매장되어 있으며, 크롬 광석에 니켈을 수반하는 형태로 존재함. 선라와 까오방성에 매장된 니켈 광석은 주로 확산 니켈-구리 광석임. 2018년 베트남 총리는 '2035년 전망 2025년까지 금, 구리, 니켈 및 몰리브덴의 탐사, 처리, 사용 개발 계획'을 승인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예상되는 베트남의 니켈 채굴 및 생산량은 2개의 니켈 생산공장, 11만 8,000톤의 니켈 정광이며 연간 생산량은 8천 톤~1만 1천 톤이 될 것으로 기대함. 2019년 호주의 광업회사인 Blackstone Minerals는 선라성 Ban Phuc Nickel Mine Co., Ltd. 지분의 90%를 인수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를 위한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 제품을 생산하는 베트남의 통합 업스트림(채광) 및 다운스트림(정제) 배터리 금속 처리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Blackstone Minerals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한 녹색 광산 및 생산공장을 가동할 예정임.

[베트남 정부포털, 3. 16]

▶ 베트남, 해외입국자 입국 요건 완화

3월 15일부터 13개국 국적자 15일 무비자 입국 허가 및 국제선 전면재개를 시행한 이후 베트남 보건부와 항공국은 해외 입국자의 검역 조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함. 해외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의 RT-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만약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베트남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2세 미만의 유아는 RT-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해외입국자는 베트남 체류 중 PC-COVID 앱을 사용하여 10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3. 16]

▶ 2월 산업생산지수(IIP) 전월 대비 12.4% 감소,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

산업무역부는 2월 베트남 산업생산지수(IIP)가 음력 설 연휴로 인하여 전월 대비 12.4%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했다고 밝힘. 특히 전체 산업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 및 제조산업은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임. 산업무역부는 올 1분기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재개가 제조 공급망 병목현상 제거에 도움이 되었으며, 핵심산업 프로젝트가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장이 생산 활동을 유지 및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 [베트남 통계청 2022년 2월 베트남 산업생산지수\(IIP\) 링크](#)

[Vietnam Investment Review, 3. 15]



▶ 베트남, 투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인상 불가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휘발유, 가스, 섬유, 철강, 목재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이후 식료품 가격도 동반 상승하여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이 심화됨. 정부는 기존 부가가치세 10% 적용 품목에 대해 2월 1일부터 8%로 감면을 실시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가격 소비자 가격 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함. VnExpress는 베트남의 설탕, 우유, 돼지고기, 라면, 액젓, 맥주, 쌀 등 9가지 필수 품목의 가격은 올 연초 대비 10~30%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베트남의 식품회사 관계자는 유가, 원자재, 포장재, 물류 비용, 인건비 등 모든 투입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4월 초에는 계란 가격도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함.

[VN Express, 3. 15]

▶ 베트남 목재 및 임산물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수출 목표

레 반 타잉(Le Van Thanh) 부총리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목재가공의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개발 전략에 승인함. 이 발전전략은 2025년까지 목재와 임산물 수출규모 200억 달러, 2030년까지 250억 달러도 달을 목표로 함. 또한 베트남은 2030년까지 수출 및 내수용 목재 모두 100% 지속 가능한 임업인증을 받은 목재를 사용할 계획임. 2021년 베트남의 임업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58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베트남 전체 농림어업 수출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베트남 정부포털, 3. 11]

▶ 베트남 환경부, 휘발유에 대한 환경세 50% 감면 제안

베트남 환경부는 휘발유에 대한 환경세 50% 인하를 재무부에 제안했으며, 재무부는 이에 대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및 등유에 대한 환경보호세율을 조정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힘. 초안은 휘발유에 대한 환경세율을 리터당 2,000동(0.088달러), 경유 및 윤활유 리터당 1,000동(0.043 달러), 등유 리터당 700동(0.0307 달러) 낮추는 것을 제안함. 세계 석유시장의 복잡한 전개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국무총리는 2월 22일 내수시장 석유 확보에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으며, 산업무역부 및 유관기관은 환경보호세율 인하 초안의 승인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3. 11]

▶ 베트남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급감

베트남 관세총국은 올 2월 베트남의 러시아 수출규모는 전월 대비 44.46%, 전년 동기 대비 12.45% 감소했다고 밝힘. 또한 2022년 첫 두 달 동안 양국간 교역규모는 베트남 총 교역비중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로 추산됨. 2021년 베트남과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55억 달러이며 이 중 베트남의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32억 달러,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23억 달러였음. 한편, 올 2월 베트남의 우크라이나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한 1,300만 달러이며 올 해 첫 두 달 동안 베트남-우크라이나 간의 교역규모는 베트남 총교역비중의 0.1%를 차지하는 1억 달러에 불과함. 2021년 베트남과 우크라이나의 교역규모는 7억 2,0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6% 증가한 바 있음.

[베트남 정부포털, 3. 9]



▶ 베트남, 2021년 세계 신발 수출 점유율 10% 차지

World Footwear Yearbook 2021에 따르면 베트남은 최초로 세계 신발 시장 수출 점유율 10%를 차지함. 베트남은 2020년에 약 12억 켈레의 신발을 수출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신발 수출국이 됨. Nike, Adidas, Reebok, Puma와 같은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들은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해외로 아웃소싱함. 그 외 베트남은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등 세계 150개국 이상에 신발을 수출함. 베트남 가죽신발협회 (LEFASO)는 베트남의 2021년 신발 수출이 전년 대비 4.6% 증가한 207억 8,000만 달러였으며, 2022년에는 신발수출이 전년 대비 10~15% 증가한 230~25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

[베트남 정부포털, 3. 3]

▶ 베트남 정부, 4월부터 경기부양책 시행 전망

쩐 쩡 프엉(Tran Quoc Phuong) 기획투자부 차관은 3월 3일 정부 기자회견에서 결의안 No.11/NQ-CP에 따라 4월부터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는 각 부처 및 성시에 공공투자 규모를 요약하여 총 리에게 제안하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4월에서 5월까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그러나 세금, 수수료 조정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법률 문서의 세부사항 마련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Hanoi Moi, 3. 3]

▶ 학교내 F0 사례 속출로 인하여 대면수업 중단 성시 증가

베트남 전역에서 F0 사례가 증가하고, 대면 수업을 재개한 성·시에서도 학교 내의 확진자가 속출하며, 대면 수업을 중단하는 성시가 증가함. 3월 1일 기준 하노이, 박장, 박간, 박닌, 하장, 화빙, 닌빈, 꽝닌, 타잉화, 꽝 빈, 꽝응아이, 빈푹, 잘라이, 럽동, 바리아붕따우 등이 대면수업을 일시 중단함. 이들 성시는 3월 1일부터 추 후 공지가 있을 때 까지 대면수업을 일시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긴급 문서를 발행함.

[베트남 보건부, 3. 2]

▶ GOERTEK, 박닌 꾸에보 산업단지에 3억 6백만달러 추가 투자

Goertek은 박닌성 꾸에보 산업단지에 3억 6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함. Goertek은 2013년 베트남에 진출 하여 박닌성과 응에안성에 2개의 공장을 운영중임. 지난 1월, 응에안성에 위치한 기존 공장에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한 바 있음. Goertek은 Foxconn, Luxshare와 함께 애플의 3대 공급업체 중 하나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3. 2]

▶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 첫 두 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

베트남 농업 및 농촌 개발부(MARD)에 따르면 2022년 첫 두 달 동안 농림수산물의 수출 규모는 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으며, 2월 한 달 동안의 수출규모는 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함. 미국은 올해 첫 두 달 동안 베트남에서 23억 달러(28.2%)를 수입한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13억 달러), 일본(5억 8,600만 달러), 한국(3억 7,600만 달러)이 뒤를 이음. 한편 중국은 베트남에 6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하여 최대 수출국을 차지함.

[베트남 정부포털, 3. 1]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 Duc Hoa 500kV 변전소 변압기 설치
- ☐ Quang Tri 500kV 변전소 변압기 설치 및 온라인 오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Binh Thuan 티타늄 광물지대 산사태경보시스템 구축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 Duc Hoa 500kV 변전소 변압기 설치

발주처	○ 기관명 : EVN NPT(National Power Transmission) ○ 연락처 : +84-24-2222-6666
프로젝트	○ 현장위치 : Long An성, Duc Hai군 ○ 규모 : 약 10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 프로젝트 단계 : Land Clearance 진행 중, '22년 3분기 입찰 예정 ○ 세부내용 - Voltage level : 500/220/350kV - Capacity : 900MVA

- ☐ Quang Tri 500kV 변전소 변압기 설치 및 온라인 오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주처	○ 기관명 : EVN NPT(National Power Transmission) ○ 연락처 : +84-24-2222-6666
프로젝트	○ 현장위치 : Quang Tri성, Hai Lang군 ○ 규모 : 약 32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 프로젝트 단계 : 투자승인 완료, '22년 3분기 입찰 예정 ○ 세부내용 - Voltage level : 500/220/35kV - Capacity : 900MVA - Contract type : Lump sum - Implemetation period : 9 months



(입찰정보)

□ Binh Thuan 티타늄 광물지대 산사태경보시스템 구축

발주처	○ 기관명 : An Hoa Tech ○ 연락처 : +84-96-323-3838
프로젝트	○ 현장위치 : Binh Thuan성 ○ 규모 : 약 1~2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정부재원 ○ 프로젝트 단계 : 파트너 모색 중 ○ 세부내용 - 티타늄 채굴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산사태경보시스템 구축 - 지역 범위 : 5ha

<끝>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KOCCA 베트남 비즈니스센터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어떤 기관인가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진흥 총괄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실감콘텐츠 등 장르별 콘텐츠의 제작지원과 기획·창제작, 유통·해외진출, 기업육성, 인재양성, 문화기술 연구개발, 정책금융지원과 정책연구를 수행합니다.

○ K-콘텐츠의 혁신성장 선도 · 문화강국 실현 기여

콘텐츠산업은 문화의 영역을 넘어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콘텐츠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변화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사업으로 빠르게 산업계를 지원하고 미래 콘텐츠를 발굴하여 새로운 콘텐츠 산업의 문을 열겠습니다. 또한, 산업계, 유관기관, 지역진흥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요 기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공정상생의 산업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ESG 경영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KOCCA 베트남 비즈니스센터(KOCCA VIETNAM)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베트남센터는 동남아 신흥시장 개척의 거점으로 2019년 8월 인력 파견, 9월부터 주베트남한국문화원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여타의 해외 비즈니스센터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현지 시장정보 제공,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베 콘텐츠 교류 협력 및 공동 제작 지원,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및 신규 마켓 개발 등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와 콘텐츠 교류를 통한 양국 간 문화·경제 협력 관계 강화는 물론 정부의 신남방정책 거점으로서 베트남 이외 인접 국가까지 연결하는 신한류 개척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OCCA VIETNAM 사업 소개]



한-베 콘텐츠 기업간 온라인 B2B 비즈매칭 상담회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 개최 (CGV 협력)



K-Culture & Content Festival in Binh Duong 2022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관 한국문화의날 한류콘텐츠 홍보

KOCCA VIETNAM은 앞으로 한류 확산을 통한 신남방 거점으로서 한-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에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줄 지를 고민해야죠”

베트남 중남부 코참(한인상공인연합회) 손영일 회장 인터뷰



중남부 코참(이하 코참)은 현재 베트남 중남부지역 4,000여개 한국진출기업과 베트남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가장 집중하고 계신 사업영역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비즈니스뉴스 독자 여러분!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코참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참에서 가장 집중하는 업무는 회원사 증대입니다. 작년에 여러 지방성 행사를 다니면서 각 지방성에서 산출한 한국기업의 수를 취합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다낭 이하 중남부지역에 3,500여개의 한국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활동이 중단된 한국기업들을 감안해도 약 3,000개 정도는 된다고 추산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중 코참 회원사는 약 800개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최소 회원사가 1,000개사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레 회원사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을 많이 드려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연간회비를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비회원사와 회원사간 큰 차별점이 없다면 1~2년 가입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원사에게는 다양한 현지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컨설팅 기회도 제공하고, 세무·통관·노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참은 베트남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경제단체이구요. 당연히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건의사항을 베트남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저희의 임무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원사들의 애로를 풀기위해 코참은 코트라 등 우리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여러가지 경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래 해야할 일을 잘 해서 회원사 규모도 늘리고 진출 기업들의 비즈니스환경도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작년은 참 어려운 해이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던 우리 진출기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한 기업의 대응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름 선방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에 위치한 한국기업 A사는 작년에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봉쇄로 인해 공장가동을 못하였을 때 A사는 가동률 100%로 운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A사는 근로자수가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작년 베트남의 초강수 방역지침인 바따이쑈(3 Tai Cho *숙식과 근로를 작업장에서 하라는 지시)를 잘 실천한 모범회사 중 하나였어요. 대규모의 봉제공장은 작업자들이 공장규모에 비해 많기 때문에 공장직원에게 갑자기 숙식을 제공하기 힘들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침이 언제까지 이행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A사는 대부분의 임직원이 몇 달을 공장 내에서 숙식하며 공장을 100%가동했어요. A사 공장 바로 옆에 빈 공장이 있었는데 이를 급하게 임대해서 직원 기숙사와 식당으로 만들어 바따이쑈를 실천하였는데,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는 힘든 부분도 많았겠지만 긴급대응책을 잘 세워 위기를 극복한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과감한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임원진들이 정말 대단한거죠. 그것이 바로 베트남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어요?

또 원자재가격상승에 덕을 본 기업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원자재 값이 엄청 올랐는데 타이어코드, 스판덱스 등 원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등과 같이 원자재를 제조하는 비즈니스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일 것 같으세요? 생산 원가는 똑같거나 소폭 인상된데 반해 판매가는 2~300% 정도나 인상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방역 때문에 정말 암흑 같은 시기를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베트남의 말도 안되는 방역지침을 잘 지킨 기업이 더 성과가 좋았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작년 6월 초 정부에서 바따이쑈를 지시하였을 때 우리 코참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거 진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꼭 해야해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저희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떡하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방역조치를 따르며 조업을 하신 기업들은 성과가 좋았지만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회사들은 힘들었어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조업이 중단되니 타격이 컸죠.



한편 베트남내 다른 공장이 있거나 다른 나라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발빠르게 물량을 이전해서 생산을 유지하기도 했지요. 그 당시 베트남에서의 기업운영은 그만큼 힘들었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철수를 하자고 판단한 회사들도 있었고요.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지요.



우리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코참 측에 가장 많이 문의했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매체에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듯이 세무, 노무, 통관 등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진출 시 제일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허가 문제인데요. 베트남 법률상으로는 45일내에 허가를 내어준다고 하였으나 베트남 정부에서는 단순한 실수만 있어도 이를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데서부터 시작하여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고 잘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파트너나 길잡이를 만나면 문제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작년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노동허가서 관련 문제였는데요. 갑자기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며 노동관련규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해야만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대사관, 총영사관, 코참이 여러 루트를 통해 베트남 정부에 제기하였고 현재는 일부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베트남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왜 꼭 한국인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요.

두번째로는 작년 6월쯤부터 시작된 바따이쑈 기준의 봉쇄와 관련된 애로였구요.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재개 등 교류재개에 대한 문의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인력부족 문제도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 이구요.

또, 앞으로는 사회보장보험 관련 애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2022년 1월 1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베트남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한-베트남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베트남내 한국인들은 가입이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과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노바랜드그룹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협력성고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베트남 기업과의 업무협약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매체에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듯이 세무, 노무, 통관 협약이란 것은 주로 상호간에 협력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결국 받는 만큼 줘야 하는 거라 생각해요. 노바랜드그룹도 저희 코참으로부터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 한국 경제단체인 코참과 업무협약을 맺었을 겁니다. 몇 천개 한국회사에 대해 자사의 리조트, 골프, 관광 등의 상품을 알릴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바랜드에 우리기업들을 알려서 여러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죠. 건설, 서비스, 가전 등등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이란 이렇게 서로 주고 받아가 되어야하지요. 협력을 하기로 했을때는 받으려고만 하지말고 뭘 줘야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도 베테랑 상사맨이신데요. 베트남기업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국기업들이 유의해야하는 점이 있을까요?

무역계약서 작성하실때는 베트남의 스탠다드한 조건을 따라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 관련 베트남에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가격조건, 선적조건 등이 포함되는데요. 만일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베트남내에서 중재로 가면 큰 문제는 대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들여다 봐주거든요. 오히려 소송으로 넘어가면 불리합니다.

한-베트남 양국 간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한국이 베트남의 어떤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할 때에는 섬유봉제신발 위주의 경공업으로 시작하였고, 특히 중남부지역은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이 이러한 유형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점차 섬유봉제신발 산업의 규모가 줄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까운 빈증성, 동나이성, 롱안성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빈프억성, 끼엔장성, 까마우성 등을 다니며 들어보면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에게 희망하는 투자는 IT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섬유·의류 산업도 유지는 되겠지만 앞으로의 신규 투자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분야가 주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베트남도 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및 서비스 산업에도 기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산업도 나를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베트남하고 협력 수요도 많지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웹툰,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을 들 수가 있겠네요

올해 베트남의 경제회복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현지 우리기업들이 대비해야 하거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올해 베트남은 각종 경제 기관이 예측하듯이 약 7%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편더멘탈이 좋다고들 이야기하듯이 베트남 경제도 편더멘탈이 괜찮습니다. 또한 작년에 강력한 봉쇄 조치를 통해 코로나를 잘 억제하였고 올해는 백신접종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With Corona 정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봉쇄 걱정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거구요.

다만 베트남이 정상화되는 속도에 맞춰 중국, 대만 등지에서 경쟁사들의 베트남 진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기업들끼리의 협력이 필요하구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회사를 운영하시다보면 느끼시겠지만 갑자기 없는 돈을 어디가서 못 만듭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인데 우리 금융 기관들 또한 많이 진출해 있고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자 조금 높다고 현지 기관으로 옮기시지 마시고 우리 금융기관의 상품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건강히 잘 지내시구요. 코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중남부 코참(한인상공인연합회) 손영일 회장님

- 2000년 아이엔티상사 설립
- 코오롱상사 베트남 주재원 6년 포함 20년간 베트남을 전문으로 하는 상사맨
- 전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호치민지회장
- 베트남 중남부 코참 수석부회장 역임



김한용 대표의 베트남 비즈니스 이야기 2탄

기은무역 김한용 대표

위탁가공으로 비즈니스 방식 변화

우여곡절 끝에 공장이 완공되었다. 대규모 부지위에 공장을 세웠으니 생산능력도 상당했다. 또 그 당시 직원들 한 달 봉급이 20불이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경쟁력도 있었다. (참고로 20년이 지난 현재는 월급여가 300불이다.)

더 이상 과거에 했던 비즈니스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예전에 취급하던 오더수준은 공장을 며칠만 돌리면 생산할 수가 있었으니 공장을 한달 내내 돌릴만한 일거리가 필요했다. 어쩔수 없이 과거의 무역기반 비즈니스는 정리를 했다.

한편 그 당시 베트남에 나와 있던 섬유회사들(약진, 신원 등)은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업체들에게 하청을 받아 업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 무역업을 정리하고 위탁가공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참고로 기은무역은 1991년에 설립되었다. 바이어에게 발주를 받아 적절한 공급업체를 물색하여 물건을 확보해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에 대한 의류 수출을 주력으로 하였는데 1993년도와 1994년도 두 해에 연이어 500만불, 1000만불 수출탑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1년 내부 사기횡령사건 발생

그런 내 인생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간 사업은 순조로웠고 은행하고는 현금거래 외에는 대출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은행으로부터 기은무역 대표인 내 이름 앞으로 은행 빚이 200만불에 달한다는 놀라운 통보를 받았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당시 우리 회사에 근무했던 경리직원 부부의 횡령 및 사기 행위로 생겨난 빚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도록 나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수법은 매우 교묘했다. 은행 거래 시 내 핸드폰으로 연락이 닿지 못하도록 전산통보 시스템에 내 전화번호가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는가 하면, 나에게서는 보험을 갱신한다면서 보험신청서 서류를 앞장에 준비하고 보여주고 서명이 필요한 제일 마지막 장에는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내 서명을 받아갔다. 베트남어를 모르는 나로서는 그냥 보험관련 업무인줄 알고 서명했던 것이다. 현금인출시에는 서명받고 난 후에 앞자리에 숫자를 추가로 작성하여 큰 금액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더욱 지독한 점은, 일이 들통 나게 되자 경찰서에서 본인과 내가 내연관계라는 엉뚱한 주장을 한 점이다. 당시 교민사회에도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나는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게 되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여러 장의 차용증을 만들어 두고 본인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도 했다. 만약 내가 200만불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다면 본인도 기은무역 사장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채권자 노릇을 하기 위함이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법인계좌의 돈을 빼돌려서 본인 명의의 섬유회사도 설립한 상태였다.

더구나 이 사기건으로 고향의 선산까지 은행담보로 잡혔었는데 집안 대대로 이어오던 유산을 나의 사업으로 인해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 괴로움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다행히 현재는 선산을 모두 되찾은 상태이다)

이들 경리 부부는 사기죄로 징역 15년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도에 사건이 발생한 후 판결이 나는 데 까지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평생 섬유업에 몸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78년에 회사에 입사해서 신입사원으로 뛰어나고 80년도에는 동경부터 후쿠오카까지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 또 창업을 하고 큰 상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일, 베트남에 입성하여 자존심도 굽히고 후배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오더를 받고 공장을 돌렸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마음이 괴로워서 풀 방법이 없었고 술을 마셔도 잊어지지 않는 힘듦이었다. 2012년도 초의 나는 매일 밤 괴로움에 쉽게 잠이 들 수가 없었다. 잠을 자도 5-10분이 최대였다. 정신이 힘들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었다.

그때 나는 매일 밤마다 회사 마당을 계속해서 돌았다. 건물 사이로 돌면 마당 한바퀴가 500m 정도가 되는데 돌아보면 아침 해가 뜨는 경우가 많았다. 이토록 잠을 못 자던 나는 뜻도 모르는 불교서적을 사다가 매일 같이 읽었다. 좋은 말이 나오면 메모하며 공부했다. 의미도 모르는 불교서적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책이라 여기고 책상에 쌓아두고 읽었다. 그때 읽은 불교서적을 바탕으로 주역, 음양오행, 역학(曆學) 관련 서적을 읽었는데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



관리와 경영가족주의의 힘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는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미리 잡아 내지 못한 것은 결국 관리의 실패 아닌가. 위탁가공업으로 전환한 것이 2007년이었고 이래저래 바쁘게 뛰긴 했으나 관리 측면에서 보면 나 역시도 부족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니 결국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공장관리, 규제, 평가제도, 컴플라이언스, 노무관리, 자산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실무에 반영했다.

또 이러한 변화를 이끌면서 한편으로는 ‘경영가족주의’의 철학도 가지게 되었다. 실제 가족이 경영한다는 뜻이 아니고, 모두가 가족같이 업무에 임한다는 마음자세이다. 나는 항상 회사 곳곳을 약속머니 손가방을 들고 돌아다닌다. 작업 하다보면 긁히거나 작은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보았을 때 바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여러 직원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다 필요시에 발라준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으나 나는 베트남 직원을 조직의 부품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나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일일 공장 2회 투어이다. 오전 1회, 오후 1회 공장을 돌아다니는데, 생산량을 보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내가 베트남어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다른 한국 직원들보다 내가 베트남 직원들과 더 친하다. 이상하게도 자꾸 얼굴을 보다보면 그냥 표정만 봐도 마음이 전해지고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다.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에게는 100% 말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각종 건의사항들이 접수되고 있지만 심각한 건의사항의 경우 통역을 불러 직원의 목소리를 내가 직접 듣는다. 물론 즉각 수용하기 힘든 내용인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들어줄 수 없는지를 솔직하게 전달한다. 반면 수용이 가능한 건의사항의 경우는 재정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최대한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반영한다.

1,700명에 달하는 베트남직원들은 본인 팀의 관리자들은 엄청 무서워하지만 나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버지라 부르는 직원도 있고 친하게 다가오고 농담도 한다.



나는 이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름을 익히고 경조사도 최대한 참가한다. 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불편함은 없는지 살핀다. 우리 회사에 곳곳에는 사훈인 ‘친구처럼! 한가족처럼!’이라는 구호가 적혀있다. 이 표어가 단순한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일이다. 우리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은데 이들을 보면서 ‘경영가족주의’의 힘을 재삼 실감한다.

<벤치 위에 적힌 기은의 사훈 : 친구처럼! 한가족처럼!>



고객신뢰가 성장동력

우리 회사는 위탁가공을 업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오더를 주시는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약진이나 신원 등이 주요한 거래선이었지만 이후 다수의 한국의류·패션 기업들이 기은과 거래하고 있다. 나는 이들과의 거래에 있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실제로 기은의 고객사들은 기은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남성 속옷 브랜드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 C패션에 1년에 1천만장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이 중 한국으로 가는 물량이 70%이고 미주지역이 30%를 차지한다. 이러한 대량생산의 경우 미스커뮤니케이션 혹은 미스매칭으로 인하여 생산 작업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기 마련이다. 우리 회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먼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해결해 내고 만다. 이런 과정이 거듭되다보니 고객사에서도 기은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믿고 따르게 되었다.

또한 미스매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찾아지지 않아 고객사가 우리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공장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투명하게 그대로 고객사에게 전달한다. 고객사는 다년간의 거래로 인해 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알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따른 문제해결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신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고객사들에게 신뢰받다 보니 고객사들의 수와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기은무역은 한국 내수 브랜드로는 네파, 블랙야크, 안다르, 이마트, 에잇세컨드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미주시장에는 요가복 등을 수출하고 있다. 요가복은 제작과정이 좀 독특한데 미국 브랜드인 90 Degree by Reflex 제품의 경우 생산의 70% 이상을 베트남 기은무역에서 책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기은무역은 고객 신뢰와 가족경영주의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기은의 도전이 독자제위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끝>



베트남 부동산 개발 절차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지사장,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Covid-19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의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20년, '21년에도 지가상승은 계속되었고 여러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베트남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개발사들 또한 활발하게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노이내 진행되는 프로젝트들만 살펴보아도 대우스타레이크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롯데몰 프로젝트, YSL남빙수엔공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부동산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절차 중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베트남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토지의 소유는 인민 전체가 소유하는 공공토지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 등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체제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개발을 진행하는 개발자는 토지를 구매한 뒤 토지를 개발하는 순서로 개발을 진행하는데, 베트남의 경우 토지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기에 개발에 앞서 개발 대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개발 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수양도하는 한국과 달리, 그 토지사용권이 양도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해야하며, 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절차는 어떠한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어떤 토지가 그 대상이 되는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큰 줄기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부동산 프로젝트 신규 개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는 방법은 이미 승인이 완료된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경우이며 실제로 이러한 거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공단으로부터 사용권을 구매하여 공장 건물을 짓고, 제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케이스,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를 양수하여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즉, 이러한 사례들은 이미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그 일부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러한 일부 프로젝트들의 기초가 되는 상위의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 것 일까요? 부동산 프로젝트를 신규 개발하는 방안으로 직접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받거나, 이미 국가가 개발할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그 프로젝트를 개발할 개발사를 선정하는 절차 등이 존재합니다. 즉,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 개발 방안을 정해놓고 그 개발을 진행할 개발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투자자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하니 그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할당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규개발절차는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아닙니다. 아예 최초부터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인민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1/10,000 도시계획을 비롯하여 1/2,000 마스터플랜 승인, 대상토지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이라면 지목변경이 필요하고, 개발승인, 건설승인, 이주 및 토지보상계획의 설립 및 그 이행 등에 관한 인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작게는 시·성급 정부와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 및 승인 단위에 따라 총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건설에 관한 첫 삽을 뜨는데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 될 수 있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들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규모에 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기 승인된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결국 새로이 승인을 취득하여 진행하는 방안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미 정부의 계획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노력과 비용으로 프로젝트 승인을 취득할 수 있다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3. 프로젝트 양수도

부동산을 개발하는 두번째 방안은 위와 같이 이미 승인받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를 양도받아 새로이 개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를 하는 경우 부동산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공된 오피스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이는 매수인이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임대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직접 프로젝트를 인수하여, 새로이 건물을 짓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 개발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기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개발을 해야합니다. 즉, 이미 프로젝트 사용 목적 등이 이미 확정되어있고, 프로젝트를 양수하는 투자자는 이에 따라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프로젝트가 양수도가 가능한 프로젝트일까요? 이는 각 개별 프로젝트에 관한 법률문서들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있고, 그 마스터플랜상 각 개발부지들이 나누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스터플랜상 한 필지로 된 토지가 있고, 그 부지의 일부만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마스터플랜의 변경 없이는 일부만 개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토지의 분할 등이 쉽지 아니하기에 베트남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애를 먹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프로젝트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있지 아니하기에 직접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즉, 구매자의 니즈에 적합한 물건을 탐색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마음에 드는 위치의 부동산을 발견하였어도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내야 그제서야 프로젝트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이 개발되는 현황을 살펴 보면, 시내에 작은 주거프로젝트들이 산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모양, 위치, 목적, 크기, 가격 등이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개발프로젝트들의 소유주 확인도 쉽지 않아 실제로 개발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 부지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4. 지분양수도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미 완성된 상업용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해야 하고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목적의 회사 자체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목적을 그대로 양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만을 본다면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는 법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한 여러 인허가를 별도 취득함 없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가 보유한 채권 채무, 권리관계 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떠한 규정위반을 하였다면 위반효과도 그대로 승계할 것이고,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다면 매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인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실사가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절차가 간소한 만큼 법률적 리스크가 큰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5. 마치며

이번 칼럼은 여러 부동산 개발프로젝트들을 자문하며 경험했던 부동산 개발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절차 및 인허가 또한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한 것을 기회로 확인되지 아니한 거래를 검토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전확인이라 생각합니다. <끝>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2) – 부동산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레반타잉(Le Van Thanh)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제15대 국회 2차 정기회의(2021년 10월)에서 2022년 국회에 제출할 토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위치적으로 좋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국가 토지 이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주문했다. 응웬찌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상업용 주택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전체 면적 중 단 1㎡라도 상업 주택 용도가 아니라면 사업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중단된 프로젝트가 호찌민과 하노이에만 각 150개나 있다고 하며, 지방 분권화, 절차의 단순화,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팜밍징(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경매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 방지하고 토지사용권 경매와 관련된 법률 규정 위반 사례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권 경매의 시행’에 관한 공보 제 1767호에 서명했고, 2022년 1월 29일에는 토지 및 토지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의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결정문(Decision 153/QĐ-TTg)에도 서명했다.

특히, 켄터(Can Tho)시 개발을 위한 6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이 2022년 3월 1일부터 5년간 시범 운영되는데, 시범 운영 방침과 더불어 총리와 부총리가 강조한 사안을 통해, 탈중앙화, 상업 주택 건설을 위한 쉬운 토지용도 변경, 지역의 토지 사용권 경매에서 종종 발생하는 담합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향후 베트남의 토지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2022년 3월 1일 시행된 부동산 사업법(Law 12/VBHN-VPQH)의 여러 조항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담은 시행령(Decree 02/2022/ND-CP; “시행령 02/2022”)에서는 기존 주택 및 건설 공사에 대한 임대 및 구매 계약, 미래에 건설될 주택의 임대 및 구매 계약,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체 또는 일부 양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관련하여, 주택매매, 임대차 계약,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의 양도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판매 및 구매 계약,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임대 및 구매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시행령 02/2022 시행일 이전인 2022년 3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서명한 관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 2)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속 자산의 소유권 증명 발급 신청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 3) 주택 또는 건설 공사 프로젝트에서, 판매, 구매, 임대-구매 계약하는 부동산 물건은 분쟁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4) 저당권자(즉, 저당 채권자 mortgagee)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한 또는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관과 개인은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기업법에 따라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 2) 부동산 사업법 제 6조 2항에 규정된 기업 정보(이름, 본사 주소, 전화번호, 법적 대표자 이름, 부동산 규모 등), 주택담보대출, 건설공사, 사업에 투입된 부동산 프로젝트(있는 경우), 거래되는 부동산 상품의 수량 및 유형, 판매, 양도, 임대-구매한 부동산 물건의 수량과 유형에 대한 정보 및 매매 중인 부동산 매물의 수량과 유형을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본부(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그리고/또는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 3) 부동산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선정된 경우, 토지이용 규모가 20헥타르 미만이라면 해당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총투자 자본의 20%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토지이용 규모가 20헥타르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는 총투자 자본의 15%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이전 시행령(Decree 76/2015/ND-CP) 하에서는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200억 동(한화 약 10억 6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현 투자법(Law 61/2020/QH14)을 통해 부동산 사업에 대한 법적 최소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었는데, 시행령 02/2022의 자기 자본 규정을 통해 부동산 사업 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금 규정을 삭제한 현 투자법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 시행령 02/2022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1) 아파트 매매 계약서 (2) 개인 주택 매매 계약서 (3) 콘도텔 및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4) 주거용 주택 또는 건설 프로젝트의 임대 계약서 (5) 토지 사용권 임대 및 전대 계약서 (6)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 계약서 등 여러 가지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콘도텔은 주택법(Law 65/2014/QH13)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유형의 부동산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도 없었다. 이에 2019년 12월 말에 건설부에서는 콘도텔 표준을 발표하고, 2020년 2월 자원환경부(MONRE)의 공문(Official Letter 703/BTNMT-TCQLDD)을 통해 콘도미니엄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시행령 02/2022를 통해 콘도텔과 오피스텔의 매매와 임대 계약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제공했다는 것은 관련 시장에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전 시행령(Decree 76/2015/ND-CP)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표준 계약서의 사용은 선택 사항이었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사항만 포함되어 있다면 표준 계약서도 자유롭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2년 3월 1일 이전에 서명된 부동산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시행령 02/2022에 첨부된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 등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이 사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무 처리 시 담당 공무원이 시행령 02/2022의 표준 계약서 형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거부할 수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명확한 추가 지침이 나와야 할 것이다. <끝>

[일부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물류상식 <수출서류(상업송장)>

대진항운 지성구 법인장

오늘부터 모르면 손해보는 물류상식을 쓰게 된 대진항운 지성구 법인장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수출서류 중 상업송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거래상 사용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매매 또는 위탁계약에 의한 물품의 수도(受渡)가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물품의 송하인으로부터 그 수하인에게 송화의 특성, 그 내용 명세, 그 계산 관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상용문서입니다.

상업송장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hipper/Seller(수출자) : 수출자의 회사명, 주소,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2. Consignee(수입자) : 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 출항예정일을 적습니다.
4. Vessel/flight(선박/항공) : 선명 및 항차를 입력합니다. (ex. Chosun Colombo 078C, KH224)
5. From(출항지) : *선적항명을 기입합니다. (* 화물을 적재하는 항구 또는 공항)
6. To(도착지) : 수입자가 지정한 *하역항을 기재합니다. (* 화물을 하역하는 항구 또는 공항)
7. Invoice No. and date(인보이스 번호와 날짜) : 인보이스 번호와 작성한 날짜를 적습니다. (번호는 차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임의로 작성)
8. L/C No. and date(수입신용장 번호와 날짜) : 수입신용장 번호와 작성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 발행번호와 발행일자를 기입합니다.
9.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바이어[수입자와 다른 경우]) :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는 란입니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였을 경우, 실 화주명을 의미합니다.
10. Other references(참고사항) 간단히 얘기하면 '비고'란 입니다. 보통 이 란에는 Country of Origin /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등 참고 사항을 나타냅니다.
1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운임 조건) :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한 운임조건을 나타냅니다.
12. Shipping Marks(취핑마크[화인]) 수출포장된 상자의 외부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s)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기호로 되어 있으면 포장상자와 동일하게 기호로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로 되어있을 경우, 주소를 적어도 되지만 간단하게 'as addressed' 또는 'as addr'로 표현합니다.



13. No.& kind of packages(포장 종류 및 수량) : 포장 종류 및 박스 수량을 기입합니다. 일반적으로 Bundle, Carton boxes 등으로 기재합니다.
14. Goods description(품목) : 제품명을 적습니다.
15. Quantity or net weight(수량 또는 순중량) 내용물의 갯수를 표기합니다.
16. Unit price : 내용물의 개당 가격을 말합니다.
17. Amount : 인보이스양식 상에 기재된 총 금액을 적습니다.
18. Signed by(서명자) : 서명을 날인합니다.

상업송장 샘플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ommercial Invoice

Shipper/Exporter		No. & date of invoice			
		No. & date of I/C			
Consignee		Remarks			
Notify party					
Port of loading	Final destination	Carrier	Sailing on or about		
Marks and numbers of PKGS	Description	Qty	Unit-price	Amount	
	에스				
TOTAL NET WEIGHT					
GROSS WEIGHT					
TOTAL MEASUREMENT					
TOTAL CARTON					
Signed by _____					

도움이 되셨길 바라오며 다음시간에는 수출서류 중 포장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 베트남의 ESG 활동동향 및 시사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SG와 베트남

- 베트남에서 ESG는 아직은 새로운 개념이긴 하나 높은 무역의존도, FDI에 의존한 경제성장 구조, 심각한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베트남은 최근 ESG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Global Risk Profile(GRP)의 2021년 ESG조사에서 베트남은 179개국 중 104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평가(119대) 대비 대폭 상승

□ 베트남의 ESG관련 정책 동향

구분	주요 정책동향
E: 환경	○ 개정 환경보호법 발표(2022년 1월1일 발효) - 환경영향평가 목록 세분화,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보호 규정 구체화, 생산자책 임재활용(EPR) 확대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
S: 사회	○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 성평등·모성보호·사회적 취약층 채용 등에 대한 장치 마련○ 개정노동법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 정년연장, 복수노조 허용, 불시 근로감독제도 신설 등 ○ 총 사회적투자를 2030년까지 GDP의 33~35%로 확대
G: 지배구조	○ 2021년부터 상장기업 대상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 ○ 개정 기업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2022 베트남의 ESG 활동동향 및 시사점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내 보고서(심층)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 - 빈즈엉성

□ 빈즈엉(Binh Duong)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1년)	- 면적: 2,695km² - 인구: 2,627,195명 - 도시거주 비율: 79.87%
지정학적 위치	- 빈즈엉성은 베트남 부의 주요경제지역에 위치해 있음. 또한 많은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베트남 남부의 주요 운송 센터임 - 북쪽으로는 빈프억(Binh Phuoc)성, 남쪽으로는 호치민시, 동쪽으로는 동나이(Dong Nai)성, 서쪽으로는 떠이닌(Tay Ninh)성 및 호치민시와 인접해 있음
접근성	- 빈즈엉성은 성의 공단 및 산업 클러스터에서 항구, 공항 및 다른 남부 지방성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주요 도로: 13번 국도, 1K 국도, 제3 순환도로, 제4 순환도로, 미프억(My Phuoc) - 탄반(Tan Van)-바우방(Bau Bang) 고속도로, DT 743, DT 741 및 DT 747 등 - 주요 철도: 디안(Di An)-송탄(Song Than), 확장형 디안(Di An)-바우방(Bau Bang) - 주요 수로: 동나이(Dong Nai)강 및 사이공(Sai Gon)강
GRDP 성장률 / 1인당 GDP('21년)	- 전년대비 GDP 성장률: 2.62% - 성 1인당 GDP: US 6,660 달러/년, 전년대비 8.5% 성장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1년)	- 총 수출액: US 315억 달러 / 총 수입액: US 246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4.32%), 서비스업(1.73%), 농수산업(2.01%)
산업구조('21년)	공업/건설업: 67.91%, 서비스업: 21.32%, 농수산업: 3.1%
노무여건('21년)	-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75% - 노동가능연령 인구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81.6%
최저임금('21년)	VND 4,420,000 = US 192 달러(1급지)
외국인투자 ('22.1월 기준)	- 빈즈엉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4,033개 프로젝트에 377억 달러 규모 (한국) 765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32억 달러를 투자하여, 투자금액 기준으로 빈즈엉성에 투자한 국가(65개) 중 5위, 한국이 투자지역 전체(59개 성) 중 8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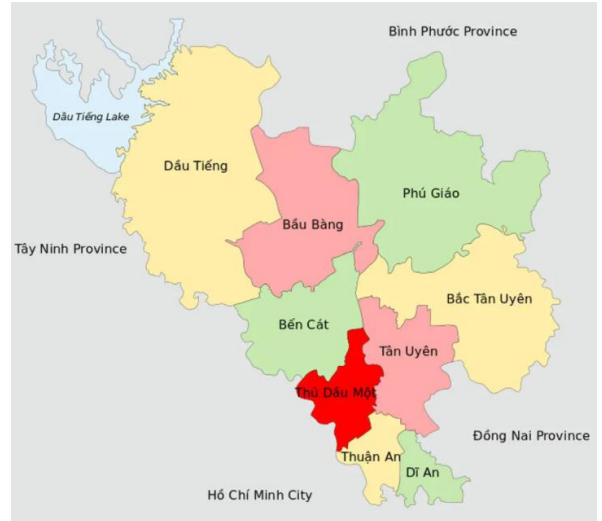


□ 투자환경

○ 뛰어난 접근성 및 물류 인프라



빈즈엉성 인근지도



빈즈엉성 내 현과 시

(도로) 2020년-2025년 기간에 빈즈엉성은 공단 및 도시권과 연결하는 성내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통하고, 교통 인프라 시스템을 개선 및 완성할 계획임

- 빈즈엉성을 관통하는 제 3 순환도로 및 제 4 순환도로
- 호치민시-투저우못(Thu Dau Mot)시-전타잉(Chon Thanh) 고속도로
- 빈즈엉성 투저우못시를 호치민시 투득(Thu Duc)시 및 동나이(Dong Nai)성 비엔화(Bien Hoa)시와 연결하는 DT 743 도로
- 빈즈엉성, 빈프억(Binh Phuoc)성, 호치민시를 관통하는 13번 국도
- 경관 조성 및 교통 체증 방지 프로젝트인 미프억(My Phuoc)-판반(Tan Van)-바우방(Bau Bang) 고속도로

(수로)

- 동나이강은 635km 길이로 베트남에서 가장 긴 내륙강이며 람동(Lam Dong), 닥농(Dak Nong), 빈프억, 동나이, 빈즈엉 및 호치민시를 관류함. 동나이강은 농업용수, 해상운송, 수산물의 주요 공급원임
- 사이공(Sai Gon) 강은 256km 길이이며, 경사도가 낮기에 교통, 농업 생산 및 양식업에 유리함

(항구)

- 빈즈엉성은 호치민시의 캣라이(Cat Lai) 항구에서 약 60km 떨어져 있음. 빈즈엉항구는 사이공강과 동나이강의 합류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리아-붕따우성의 까이몹(Cai Mep) 국제 항구들과 연결되어 있음. 수출입 기업의 교통 체증을 줄이고 운송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함.

(항공)

- 남부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인 땀선녓 국제공항에서 빈즈엉성까지의 거리는 약 50-60km 임



○ 역사·문화 및 천연 자원

(역사·문화)

빈즈엉성은 역동적인 경제활동 외에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하는 역사 및 문화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2개의 국립 역사·문화 유적지 및 44개의 일반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전통 수공업마을 문화개발 과정에서 300년 이상된 유명 공예 마을의 수공업품들로 깊은 인상을 남겨오고 있으며 도자기 마을, 목공 마을, 옷칠 마을과 같은 전통적인 수공업 작업마을은 오래전부터 번성하였음.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명승지, 생태관광지역과 다양한 전통축제가 또한 지속 개최되고 있음.

- 바티엔하우(Ba Thien Hau) 탑 축제 - 투저우뭇(Thu Dau Mot)시
- 망고스틴과 두리안 특산품으로 유명한 라이티에우(Lai Thieu) 과수원-투안안(Thuan An)시
- 락 까잉 다이 남 반 히엔(Lac Canh Dai Nam Van Hien) 관광구역
- 카우 산(Nui Cau)-저우띠엥(Dau Tieng) 호수 관광구역

이외에 빈즈엉성 특산 요리인 바잉베오미리엔(Banh Beo My Lien) 브랜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0대 베트남 특산품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Lai Thieu 과수원



Lac Canh Dai Nam Van Hien 관광구역

(천연 자원)

열대 기후와 비옥한 토양의 특성으로 인해 빈즈엉성의 산림은 매우 다양하며, 희귀한 목재, 약 원료, 식용 식물 및 희귀 동물 등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빈즈엉성은 지하에 풍부한 광물을 함유하고 있어 자연의 혜택을 받은 땅이라 불리기도 하며 고령토, 백토, 유색 점토, 백자갈, 청석, 라테라이트가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음. 특히 집중된 지역은 탄우옌(Tan Uyen)현, 투안안(Thuan An)현, 지안(Di An)현, 투저우뭇(Thu Dau Mot)시임.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세

투자지역, 분야	세율	감면, 면제 기간	법적 근거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경제구역, 하이테크 구역	15년 간 10%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 의결서 218/2013/ND-CP(제 15.1조, 제 16.1조) - 의결서 12/2015/ND-CP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즉, 첨단 기술 법의 규정에 따른 우선 순위 목록에 있 는 하이테크 응용 등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환경 보호 분야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산업단지, 수출 가공 구역	10년 간 17% (2016년 1월 1일 부터 유효)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사회경제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위치 한 공단 제외 (투자우뚝시 등)	- 의결서 218/2013/ND-CP (제 15.3조, 제 16.3조) - 의결서 12/2015/ND-CP (제1.14조)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고급 철강 생산, 에너지 절약 제품 제조, 농업, 임업, 어업 및 소금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제조, 가축, 가금류 및 수 생 동물을 위한 사료 생산 및 정제, 전통 산업 개발			
농업 및 어업 부문 재배, 축산 및 가공	10년 간 15%		

- 토지 및 수면 임대료

투자지역, 분야	감면, 면제 기간	법적 근거
특별 투자 우대 분야	토지 및 수면 임대료 면제, 전체 임대 기간	- 의결서 46/2014/ND-CP - 의결서 31/2021/ND-CP(부록 II) - 의결서 35/2017/ND-CP(제 8.6조)
공통 (개량 건설 및 생산/사업장 확장은 제외)	기본 건설 중 토지 및 수면 임대 면제(최대 3년), 그 후에 건설 중 3~19년 면제(투자 분야/지역에 따라 다름)	



- 수입세 : 수입세 및 수출세법의 정부의 세부규칙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에 대한 제 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름

- 고정자산을 형성하는 화물, 설비 및 기계,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자재 및 기계 등 수입 시: 수입세 면제
-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식물 품종과 가축 품종 등 수입 시: 수입세 면제
- 수출용 재화 생산용 원부자재 등 수입 시: 수입세 면제
- 투자 우대 분야에서 투자 프로젝트에는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부자재, 부품 등 수입 시: 5년간 수입 면제
- 기타 특수 기계, 설비 및 자재 등 수입 시: 수입세 면제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빈즈엉성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호치민시에 이어 베트남에서 두번째로 많은 지역임. 빈즈엉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4,033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377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음. (2022년 1월 20일 기준)

○ 한국계 투자

빈즈엉성 내 한국투자는 765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32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음. (2022년 1월 20일 기준) 투자금액 기준, 한국이 투자한 전체지역(59개의 성) 중 8위 규모이며 빈즈엉성에 투자한 국가(65개) 중 5위임.

○ 빈즈엉성 내 10대 한국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금액 (US 달러)
1	Kolon Industries Inc.	제조 및 가공 산업(폴리에스터 타이어 생산)	241,367,000
2	Orion Corporation	제조 및 가공 산업(여러 종류의 제과)	101,500,000
3	DCT Partners Co., Ltd	부동산 사업(고층 아파트, 쇼핑몰)	100,000,000
4	KEPCO	건설(리조트, 골프장)	81,166,000
5	Panko Corporation	제조 및 가공 산업(방직가공, 각종 의류)	69,819,000
6	Woojin Vina	제조 및 가공 산업(플라스틱 제품 생산)	66,788,000
7	DRB International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	47,000,000
8	Lotte Vietnam	도소매업	41,800,000
9	Shinbo Vina	제조 및 가공 산업(염료 생산)	40,000,000
10	Waps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목재 및 플라스틱 건축자재)	4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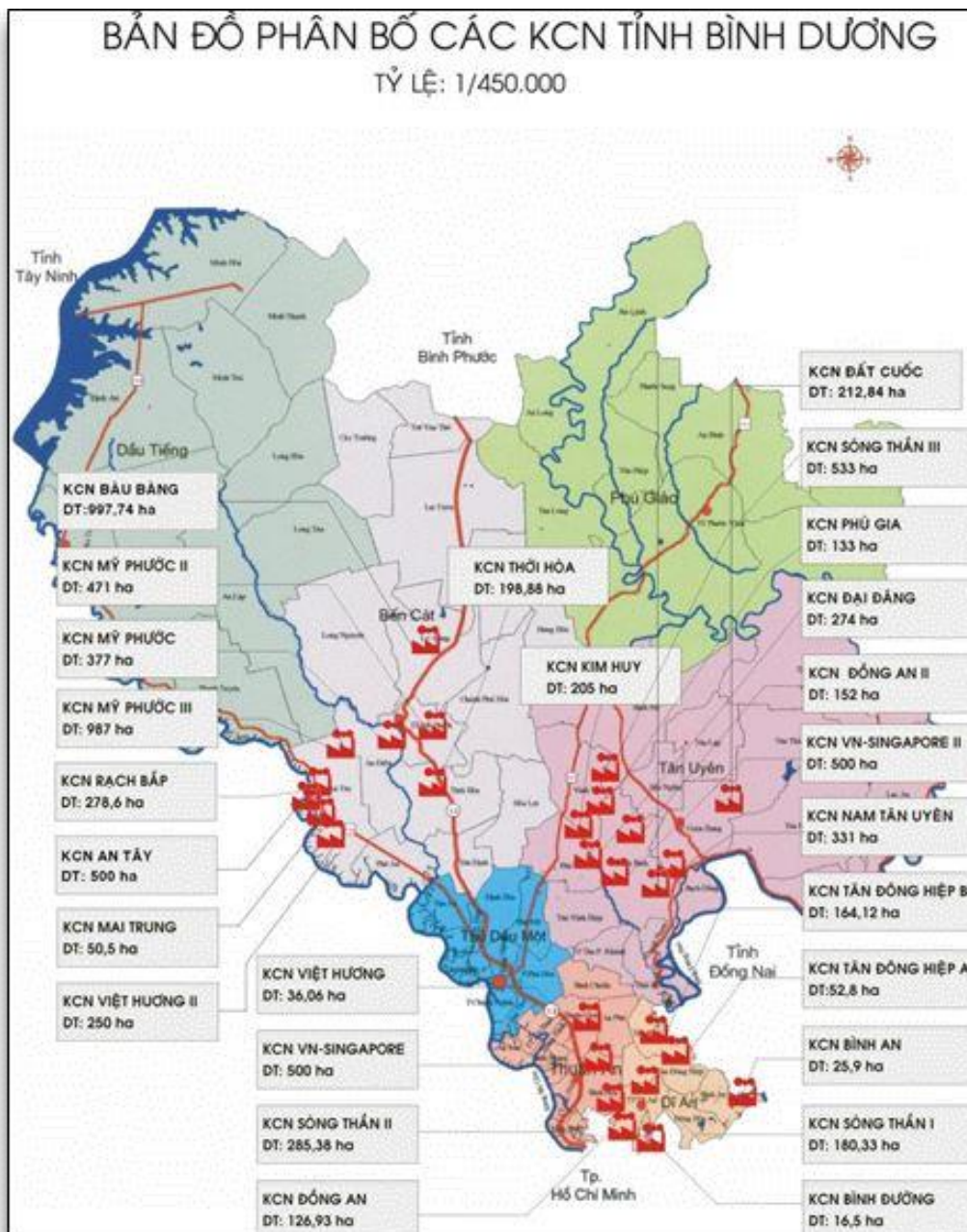


□ 공단 현황

○ 공단 개발을 통한 산업 개발 동력

- 빈즈엉성에는 총 13,000ha 계획 면적에 걸쳐 29개의 공단이 있으며, 그 중 27개의 공단이 총 10,962ha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단의 총 임대면적은 6,836ha, 점유율은 89.98%, 유효사업 3,014건 중 외국인투자 사업은 77.7%임
- 베트남-싱가포르(VSIP 3) 및 가이즈영(Cay Truong) 공단은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음

빈즈엉성의 공단 지도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ha)	투자자/개발사
1	바우방(Bau Bang)	2007	1,000	Becamex IDC Corp - 홈페이지: http://becamex.com.vn
2	미프억(My Phuoc)	2006	1,700	Becamex IDC Corp - 홈페이지: http://becamex.com.vn
3	푸자(Phu Gia)	2007	133	HCMC General Import Export and Investment JSC - 홈페이지: http://www.imexco.vn
4	비엠흥(Viet Huong) II	2003	250	Viet Huong Group - 홈페이지: http://viethuongip.com
5	탄동히엵(Tan Dong Hiep) B	2002	164	Phu My Company Limited
6	송탄(Song Than) III	2005	533	Dai Nam Joint Stock Corporation
7	동안(Dong An) II	2006	152	Hung Thinh Trading Manufacture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 홈페이지: http://dongan-group.com.vn
8	다이당(Dai Dang)	2005	274	Da Deng Construction and Investment Co.,Ltd - 홈페이지: http://dagen.com.vn

* 빈즈영성의 토지 임대료는 토지사용기간에 따라 US \$40~120/m² 차이가 있음

□ 투자 유망분야

빈즈영성은 다음 산업 및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하이테크, 친환경, 낮은 노동집약도, 고부가가치 산업
- 금융 서비스, 물류산업
- 제조 지원산업, 첨단 농업
- 특히 선진국의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희망함

□ 빈즈영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빈즈영성 산업무역청	Mr. Nguyen Truong Thi (부청장)	• Tel: +84-2743-822-563 • Email: soct@binhduong.gov.vn • Website: socongthuong.binhduong.gov.vn
빈즈영성 공단관리위원회	Mr. Bui Minh Tri (위원장)	• Tel: +84-2743-831-215 • Email: bqlkcn@binhduong.gov.vn • Website: kcn.binhduong.gov.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2. 2. 20 기준 누계		2022. 1. 1 ~ 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9,248	78,426.64	31	63.39	1,408.34
일 본	4,809	64,134.97	15	12.88	305.01
싱가포르	2,862	66,285.10	29	222.77	1,707.45
대 만	2,851	35,432.28	10	43.92	105.65
홍 콩	2,056	28,400.94	14	112.72	510.58
버진아일랜드(영)	884	22,072.24	4	21.45	27.75
중 국	3,353	21,851.15	28	78.87	537.65
말레이시아	668	12,848.86	2	0.32	3.05
태 국	649	13,028.63	5	7.2	137.33
네덜란드	380	13,549.29	1	0.1	0.2
미 국	1,147	10,336.17	6	6.58	34.33
기타	5,793	52,454.62	38	61.56	218.48
전체 합계	34,700	418,820.88	183	631.76	4,995.82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2. 2. 20 기준 누계		2022. 1. 1 ~ 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627	247,429.36	51	346.76	3,132.82
2	부동산경영	1,007	64,358.18	8	186.89	1,519.57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78	36,246.13	2	1.13	59.95
4	호텔, 외식서비스	897	12,722.87	2	0.3	4.56
5	건설	1,773	10,834.19	3	1.02	9.38
6	도소매, 유지보수	5,624	9,106.54	52	29.17	55.59
7	물류운수	924	5,752.62	5	0.57	3.43
8	채광	109	4,900.37	1	1.98	1.98
9	교육, 양성	610	4,436.63	2	2.21	2.51
10	정보통신	2,485	4,288.06	23	27.83	51.38
11	과학기술, 전문활동	3,823	4,128.69	29	8.69	109.57
12	농, 임, 수산	518	3,731.25	2	2.61	6.13
13	예술 오락	137	3,392.34	-	-	0.17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3	2,908.70	1	0.45	8.0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741.34	-	-	-
16	행정, 지원 서비스	522	992.86	1	0.1	7.5
17	금융, 은행, 보험	79	810.68	1	22.05	22.91
18	기타서비스	145	729	-	-	0.3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4,700	418,820.88	183	631.76	4,995.82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2(누계)
수출	2641.8	2826.5	3363.1	545.1
수입	2530.7	2627	3322.3	550.9
무역수지	111.1	199.5	40.8	-5.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2(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378	51,183	57,537	8,339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35,925	44,576	50,828	7,954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303	27,193	38,344	6,319
섬유/직물제품	32,850	29,809	32,753	5,636
신발류	18,320	16,791	17,751	254
원목 및 목제품	10,647	12,371	14,809	2,440
철강제품	4,210	5,258	11,795	718
수송수단 및 부품	8,505	9,090	10,616	1,810
수산물	8,543	8,412	8,886	1,507
원사(Yarn)	4,176	3,736	5,612	917
기타	71,332	74,235	87,379	18,623
합계	264,189	282,654	336,310	54,51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2(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51,353	63,971	75,440	13,725
기계/플랜트 및 부품	36,748	37,251	46,296	6,96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4,615	16,645	21,434	3,644
의류(원단)	13,276	11,875	14,324	2,337
플라스틱 원료	8,991	8,397	11,685	2,098
각종 철강	9,507	8,066	11,523	2,010
기타 비금속	6,385	6,052	8,611	1,476
플라스틱 제품	6,538	7,274	7,959	1,254
화학제품	5,419	5,741	7,627	1,406
화학물질	5,128	5,016	7,735	1,469
기타	95,110	92,412	119,600	18,714
합계	253,070	262,700	332,234	55,09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2(누계)
1	미 국	47,526	61,347	77,077	96,293	16,222
2	중 국	41,268	41,414	48,905	56,009	7,890
3	한 국	18,205	19,720	19,107	21,945	3,659
4	일 본	18,851	20,413	19,284	20,128	3,359
5	홍 콩	7,955	7,156	10,437	11,996	1,623
6	네덜란드	7,076	6,881	6,999	7,686	1,405
7	독 일	6,869	6,555	6,644	7,286	1,373
8	인 도	6,542	6,674	5,235	6,259	1,227
9	태 국	5,494	5,272	4,917	6,161	1,055
10	영 국	5,776	5,758	4,955	5,765	946
	기 타	77,921	82,999	79,094	96,782	15,758
	합 계	243,483	264,189	282,654	336,310	54,51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2(누계)
1	중 국	65,438	75,452	84,187	109,874	18,340
2	한 국	47,497	46,935	46,895	56,155	10,101
3	일 본	19,011	19,526	20,341	22,648	3,563
4	대 만	13,228	15,173	16,701	20,772	3,766
5	미 국	12,753	14,365	13,713	15,270	2,164
6	태 국	12,023	11,656	10,968	12,564	2,106
7	말레이시아	7,450	7,291	6,575	8,148	1,526
8	오스트레일리아	3,984	4,456	4,677	7,946	1,241
9	인도네시아	4,918	5,703	5,382	7,587	1,045
10	인 도	4,147	4,538	4,435	6,950	1,299
	기 타	46,238	47,975	48,826	64,320	9,947
	합 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55,09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2(누계)
수 출	48,629(1.8)	48,178(-0.9)	48,510(0.7)	56,729(16.9)	10,536(25.0)
수 입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4,384(18.1)
무역수지	28,997	27,107	27,931	32,763	6,152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	2022.2(누계)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6(22)	2,690(34.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2,259(26.9)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554(69.9)
무선통신기기	2,631(-19.9)	2,932(11.4)	3,460(18)	3,315(-4.2)	472(-16.2)
기구부품	2,332(-10.7)	2,230(-4.4)	2,241(0.5)	2,405(7.3)	390(3.5)
석유 제품	1,976(-0.6)	2,196(11.2)	1,196(-45.5)	1,157(-3.2)	536(171.7)
철강판	1,049(6.5)	1,157(10.4)	1,052(-9.1)	1,267(20.4)	184(-1.2)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8)	1,174(5.3)	186(3.2)
자동차부품	474(23.3)	668(40.9)	673(0.8)	924(37.3)	163(22.9)
편직물	1,107(-1)	996(-10)	851(-14.6)	931(9.4)	141(13.5)
기타	16,341	16,465	15,255	17,065	2,961
합 계	48,622	48,178(-0.9)	48,511(0.7)	56,729(16.9)	10,536(25.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	2022.1
무선통신기기	4,838(22)	5,691(17.6)	4,980(-12.5)	5,579(12)	980(16.3)
의류	3,570(24.2)	3,646(2.1)	3,145(-13.7)	3,393(7.9)	605(10.6)
컴퓨터	539(-3.7)	679(25.9)	1,270(87.1)	1,659(30.6)	458(9.3)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4(-4.4)	194(-9.9)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152(19.7)
산업용 전기기기	417(31.5)	479(14.8)	574(20)	725(26.2)	137(25.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4)	1,197(5.2)	1,027(-14.2)	876(-14.7)	133(160.7)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101(17.9)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111(34.6)
영상기기	364(-9.1)	356(-2)	406(14)	460(13.2)	101(21.6)
기 타	6,164	6,331	6,474	8,161	1,412
합 계	19,643(21.4)	21,072(7.3)	20,579(-2.3)	23,966(16.5)	4,384(18.1)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1년(연간)	%	7.6	5.6	3.1	3.7	2.6
		2021년 3Q	%	7.1	7.1	△4.5	5.0	△6.2
		2021년 4Q	%	6.1	7.7	3.6	3.5	5.2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121.8	N/A	118.1	N/A	4.8
		2022년 1월	-	123.9	26.5	125.0	N/A	2.4%
		2022년 2월	-	N/A	18.6	N/A	N/A	8.5%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1년(연간)	-	50.7	N/A	112.1	51.7*	N/A
		2022년 1월	-	50.6	50.0	117.1	53.7	53.7
		2022년 2월	-	50.2	52.8	N/A	51.2	54.3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1년(연간)	-	102.1	N/A	90.5	98.4*	N/A
		2022년 1월	-	104.5	N/A	N/A	119.6	N/A
		2022년 2월	-	N/A	N/A	N/A	113.1	N/A
	소매판매	2021년(연간)	-	90.7	N/A	135.5	198.1*	3.8%
		2022년 1월	-	108.2	N/A	147.4	209.6	1.3%
		2022년 2월	-	N/A	2.1%*	N/A	202.8	3.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2.3	4.5	2.5	106.5*	1.8
		2022년 1월	%	4.0	3.0	2.3	108.3	1.9
		2022년 2월	%	N/A	3.0	N/A	108.2	1.4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1년(연간)	%	118	N/A	5.6	N/A	9.2(누계)
		2022년 1월	%	N/A	N/A	N/A	N/A	4.2(누계)
		2022년 2월	%	N/A	N/A	N/A	N/A	△8.5(누계)
고용	실업률	2021년(연간)	%	2.6	N/A	4.6	N/A	4.0
		2021년 3Q	%	2.7	8.0	4.6	6.5	3.9
		2021년 4Q	%	2.5	6.9	4.3	N/A	3.6
무역	수출증가율	2021년(연간)	%	19.1	N/A	26.0	41.9	19
		2022년 1월	%	22.1	8.9	23.5	25.3	1.6
		2022년 2월	%	22.3	N/A	16.8	34.1	13.2
	수입증가율	2021년(연간)	%	20.4	N/A	23.3	38.6	26.5
		2022년 1월	%	28.3	63.2	26.4	36.8	11.5
		2022년 2월	%	19.6	N/A	18.4	25.4	21.9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한-베트남 미래산업 경제협력 파트너십 포럼

KOTRA에서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한-베트남 미래산업 경제협력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사업개요

- 일시/장소** 2022. 04. 26.(화), 14:00 ~ 16:00 (베트남 기준)/
하노이 롯데호텔 크리스탈 그랜드 볼룸
- 참석대상** (현장) 양국 정부/유관기관, 베트남 투자기업 등 약 100명
(온라인) 베트남 진출 관심 기업 등 약 100명 (유튜브 생중계)
*KOTRA biz ☞ <https://www.youtube.com/c/kotrabis>
- 참가신청** 구글폼으로 신청 ☞ <https://forms.gle/ygEC82eTNKGvR9sC6>
(현장 참가는 100명으로 제한, 온라인은 제한 없음)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발표자(잠정)
14:00-14:03(03)	▪ 개회사	KOTRA 유정열 사장
14:03-14:06(03)	▪ 인사말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
14:06-14:09(03)	▪ 환영사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박노완 대사
14:09-14:12(03)	▪ 축 사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응우옌 부 쑹 대사
14:12-14:32(20)	▪ 베트남경제 동향및양국협력관계발전방향	중앙경제연구소 응우옌 호아 쿠옹 부회장
14:32-14:52(20)	▪ 한-베 산업 협력 발전 방향	KIEP곽성일 박사
14:52-15:07(15)	▪ 한-베 미래산업 상생협력 방안(소재부품)	산업무역부 산업청 응고 카이 호안 부국장
15:07-15:22(15)	▪ 한-베 미래산업 상생협력 방안(IT)	정보통신부 정보기술국 응우옌 탄 뚜옌 부국장
15:22-15:42(20)	▪ 한-베 미래산업 상생협력 방안(공급망 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15:42-15:57(15)	▪ 현지 투자기업 성공사례	(주)캠시스 박영태 대표이사
15:57-18:00(06)	▪ 사진 촬영	

※ 한-베 동시통역으로 진행, 현장 참가의 경우 선착순 100명까지 가능



정책간담회 (물류산업)

☑ 행사개요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08:30~13:30 (한국시간 10:30~15:30)
- 장소 : 롯데호텔 하노이센터
- 주최 : KOTRA, VIETRADE
- 참가자 : 물류산업 관련업체
- 참석 : 오프라인(온라인 동시 진행: Zoom Webinar)
- 주요내용 : (베트남 정부)산업 발전 정책,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기업체)양국기업간 협력방안, 우리기업 애로-건의-정책 제언 등



☑ 프로그램

시간(베트남 시간)	내용	연사
8:30 ~ 9:00	참가자 등록 및 행사소개	
9:00 ~ 9:15	개회사	Mr. Vu Ba Phu 비엠티레이드 청장
	환영사	이종섭 본부장 코트라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9:15 ~ 9:35	산업 발전 정책과 지원 방향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청
9:35 ~ 9:55	베트남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베트남 교통부
9:55 ~ 10:10	커피 브레이크	
10:10 ~ 10:30	양국기업간 협력방안 및 제언	베트남 선두 물류기업
10:30 ~ 11:00	애로-건의 사항(투자-사업) 및 정책제언	한인물류협회(KOCA)
11:00 ~ 11:20	전략적 물류 인프라 구축 지역	InvestProcen
11:20 ~ 12:00	그룹 토론 및 정책제언	참가자 전원
12:00 ~ 13:30	오찬	현지 참가자

*한-베 순차통역으로 진행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E3p4MTozezSgP2DX6>

※ 문의처: 코리아데스크

● 최동철 팀장 / dcchoi@kotra.or.kr / 093 455 7363

● Ms. Tran Thu Quynh / thuquynh1124@kotra.or.kr / 094 759 5626

● Ms. Nguyen Thi Nguyet Ha / hanguyen@kotra.or.kr / 098 110 3280

